

'작은 행복찾기' 책들로 사회불안 잊을까

잔잔한 일상의 행복을 담은 책 줄이어 ... '감동의 인스턴트화' 우려

'행복'을 사고 팔 수는 없지만 행복해지는 방법을 구하기는 어렵지 않다. 최근 서점에 행복을 위한 지혜와 방법론을 담은 책들이 넘쳐난다. 올해 출간돼 아직 서점의 판매대를 지키고 있는 이런 종류의 책들은 줄잡아 30여종. 이 가운데 주를 이루는 것은 사소하고 평범하지만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일화들을 모은 책. 이밖에도 옛 현인들의 우화를 모은 책도 있고 지침이 될 만한 명언이나 명구, 속담 등을 중심으로 한 책도 있다.

중심으로 삼고 있는 글의 형태는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이 책들은 한결같이 인생의 참 의미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생 각케 한다는 측면에서는 궤를 같이한다. 일종의 인생지침서라고나 할까. 큰 것이 아닌 작은 것, 물질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인 것, 외형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 이 책들이 전하는 공통적인 메시지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들 책이 한결 같이 아무때나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봐도 무관하도록 연속성이 없는 짧막한 이야기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 부담없는 독서에 이야기를 읽는 흥미와 독서후의 감동과 의미까지 얻을 수 있는 탓인지 최근 이들 책은 우리 독서시장을 주도하는 중요한 흐름을 형성할 정도로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작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들

인생지침서 붐을 선도한 책으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이레)를 꼽는 데 이의를 가진 출판인은 드물다. 지난해 10월에 첫권이 출간된 이후 모두 3권이 나온 이 책은, 얼마전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인생지침서에 자리를 내주기 전까지 대형서점의 베스트 1위 자리를 장기집권하는 '이적'을 보여주었다. 일상에서 느끼는 사소하지만 감동적인 경험들이 행복한 삶을 낳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이 책의 내용처럼.

미국의 대표적인 카운셀러이자 세미나 강사인 잭 캔필드와 마크 비트 한센이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겪은 감동적인 일화를 모아서 펴낸 '닭고기 스프' 시리즈를 우리말로 옮겼다. 이 책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타고 약 100만부가 팔려나갔다. 출판사측은 '101가지 이야기'의

최근 서점에 행복한

인생을 위한 지혜를 담은

책들이 넘쳐난다. 이들 책은

공통적으로 아무 때나

아무 페이지나 펼쳐봐도

무관한 연속성 없는 짧막한

이야기 형식을 취한다.

'따라하기 출판'의 폐쇄와 함께

감동의 인스턴트화'가 미칠

장기적인 염려를 지울 수 없다.

인지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 같은 이름과 형식으로 주제별, 대상별로 특화된 책을 펴낼 계획이다. 최근 출간된 《여자들의 마음이 열리는 101가지 이야기》는 그 첫권이다. 불치병 환자를 위한 책, 10대를 위한 책 등이 준비중이다.

한편, 지난 94년 '101가지 이야기'와 같은 시리즈의 첫권을 번역한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를 출간, 큰 재미를 보지 못했던 푸른숲도 최근 제목을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로 바꾸고 표지도 새롭게 단장해 내놓았는데 반응이 좋다. 같은 책이라도 시기에 따라 독자들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케 한 사례다.

14세기 스페인의 인생지침서를 우리말로 옮긴 《선과 악을 다루는 35가지 방법》(자작나무)도 5월에 출간된 이후 약 25만부가 팔려나가면서 최근 '101가지 이야기'를 밀어젓고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끄는 책이다. 《소금》(움직이는 책), 《눈물이 나올 만큼 좋은 이야기》(살림) 등도 출간 2~3개월만에 5쇄를 찍었다.

이밖에도 스페인어권 작가 및 저널리스트들 가운데 세상살이의 진실을 유머와 우화의 형태로 밝힌 글들을 소개한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36가지 이야기》(나제통문)이나 일본의 사회운동인 '작은친절운동'의 사례를 담은 《눈물이 나올 만큼 좋은 이야기》(살림)도 눈길을 끄는 책이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책들이 '기분부수는 나간다'는 것이 관련 출판사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사회적인 불안과 불신 때문인지 감동적인 일화를 모은 인생지침서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인생지침서들이 최근 붐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푸른숲의 한예원 편집장은 "우리나라 독자들은 기본적으로 우화나 명상서에 관심이 높다. 여기에도 인생지침서·지혜서의 붐에는 일정한 주기가 있는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한다. 대략 3~4년을 주기로 하는데 올해가 바로 그해라는 것.

인생지침서 및 명상서 등의 호조는 정신적인 부분, 인간의 내면 등 사람들의 시선이 안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외부 즉 사회환경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작용하는데, 최근 잇달아 터진 대형사건들과 불황의 여파 등이 그 한 요인이 되었으리라는 분석이다.

'따라하기 출판' 등 폐쇄도 우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마음을 여는' '마음의 창을 여는' '마음의 지혜를 가꾸는'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으로 보내는' '마음에 새겨지는' 등 최근 출간된 책들의 제목에서 유난히 두드러지는 '마음'에 대한 강조는 독자들의 관심의 방향을 보여주는 한 증거이기도 하다.

한 서점관계자는 최근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이야기'에 대한 관심과 '감동의 상품화'도 한 요인으로 지적한다. 연예인의 인생 이야기뿐 아니라 평범한 일반인들이 살아온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가 방송 소재가 되고 방송 전제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졌을 뿐 아니라, 방송사가 직접 나서서 고민을 해결

하거나 연예인들의 깜짝쇼를 통해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이 유난히 많아졌다는 것. 결국, 이러한 흐름이 과거 인생지침서의 주류를 이루던 철학적 에세이를 작고 흥미로우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대체시켰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김중주 박사(반포 신경정신과 병원 원장)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순간적인 감동, 판단을 제공해주는 인생지침서들의 범람이 만족을 연기시킬 줄 모르는 우리 사회의 조급하고 표피적인 경향과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닌가"며 경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불황일 때는 흐름이라도 타야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고백하는 한 출판인은, 또다른 흐름이 출판계를 주도할 때까지 최근의 인생지침서 붐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손쉽게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먹이에 편하고 길들여지면 맛도 그만인 인스턴트 식품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더할 나위없이 편리하고 고마운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감수해야 할 해악 또한 전혀 없지는 않다. 최근의 인생지침서 붐을 보면서 우리 출판계의 고질적인 '따라하기 출판'의 폐쇄와 함께 '감동의 인스턴트화'가 미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염려를 지울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남정〉